

# 익산, '다이로움'으로 잡는다

### 정책 지속 발굴...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익산시가 지역의 대표 브랜드 '다이로움'을 분야별로 확대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특히 경제뿐만 아니라 복지, 문화까지 아우르는 특색있는 정책 발굴과 폭넓은 지원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 이끌어간다.

지난 13일 시는 올해 전국 최고로 인정받은 지역화폐를 필두로 '다이로움' 브랜드를 내세운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화폐 '다이로움'과 '다이로움' 택시 등 생활밀착형 지원 혜택을 통해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전국 최고의 혜택을 자랑하는 '다이로움'은 올해도 최대 20%의 혜택을 이어나간다. 시는 지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연계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누적 100만회를 돌파한 '다이로움' 택시는 보다 확대된 혜택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시는 자동결제 이용 시

제공한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확대하고 '다이로움' 결제 시 페이백도 지속 제공한다.

가입률 88%로 대기업 플랫폼을 제친 '다이로움' 택시는 택시 기사 수수료, 소비자 이용 효율로 11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확 낮춘 덕분에 일일 9천여건의 호출 횟수를 기록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해줄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도 매월 셋째 주 정기적으로 개최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시는 민·관·학 지역 기관과 연계한 거버넌스 형식으로 취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기업과 우수 중소기업들의 참여율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현장 컨설팅 중심의 취업박람회, 온·오프 라인 취업 정보 등 익산만의 온·오프

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을 정착시켜 청년들의 취업 성공률을 높인다.

문화 분야에서도 '다이로움'의 활약은 이어진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4대 종교체험 '다이로움 익산여행'은 시즌 2로 새롭게 선보인다. 단순 종교 순례에서 벗어나 승마체험과 지역 대표축제 등을 연계해 지역 특색을 살린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특화한다.

올해는 타지역 여행사와 협력을 강화해 외국인과 종교문화에 관심이 많은 여행객을 대상으로 모집 인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시립예술단이 직접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시립예술단이 직접 권역별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이로움 콘서트'를 개최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이 밖에도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청소년 정책 개발단 '청소년 다이로움', 어려운 이웃들의 든든한 지원군 '다이로움 나눔+기부' 공간과 밥차 등 새롭고 특색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어나간다.

시 관계자는 "익산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다이로움'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 줄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효율적인 정책으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과 행복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는 지스코(GSCO,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역 MICE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 지역 MICE 산업 발전 견인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섬의 날 등 연이은 대형행사 개최

군산시는 지스코(GSCO,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역 MICE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지스코는 지난 2014년 개관한 전북 유일의 전시컨벤션센터로 2,000석 규모의 컨벤션홀을 비롯 10개의 회의실, 1만8000㎡ 규모의 실내·외 전시장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지역 거버넌스(전북도, 부유 등)와 연계한 공동 마케팅, 찾아가는 MICE 설명회 등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전시회 15건을 비롯한 컨벤션·회의 12건 등의 행사 개최로 연간 15만명의 참가객이 다녀갔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 서고 있다.

또 제3회 섬의 날 행사, CSTC 아·태 지속가능관광 컨퍼런스 등 국제·대형 행사 이외에도 한국환경생물학회,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등 대형 학술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특히, 지스코 대표 주관전시회인 새만금오토&레저캠핑쇼, 새만금 JOB콘서트를 개최해 참여되어 있던 지역 MICE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2만 여명이 참가한 새만금오토&레저캠핑쇼는 70여개의 캠핑·레저 업체를 비롯해 클래식카 특별전시, 군산 수제맥주 스토어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들이 개최되어 눈길을 끌었다.

새만금개발공사 등 5개 지역 주요 기관과 10여개의 지역 내 구직 기업이 참여한 새만금JOB콘서트에는 1,500여명의 지역 구직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굴뚝없는 황금산업'이라 불리는 MICE산업은 행사 참가객의 소비력이 일반관광에 비해 높고, 도시 홍보 및 마케팅 등과 연계되는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 상권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이다.

/군산=김판근기자

## 정헌율 시장, 설 앞두고 일선 사회복지시설 직접 챙겨

### 사회복지시설 4곳 방문, 생활인과 종사자들에 격려와 위로 전달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일선 복지시설을 직접 살폈다.

이날 방문한 곳은 기쁨의 하우스(미혼모가족복지시설), 합열터성원(노인 요양시설), 시문육아원(양육시설), 창혜원(장애인거주시설) 네 곳이다.

정 시장은 현장에서 새해 인사를 나누며 생활환경 등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피고, 생활인 및 종사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특히 명절마다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생활인들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보살피는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생활인



정헌율 익산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일선 복지시설을 직접 살폈다.

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좁은 복지인정만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소외계

층 지원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설 명절 1천억원 신속 집행... 자금난 해소

익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약 1,000억원의 자금을 신속 집행해 취약계층과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집중한다.

시는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운용으로 자금 집행을 집중해 경기침체 위기 상황에서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 명절 전인 20일까지 각종 취약계층 지원 488억원, 각종 공사·용역·물품 등 84억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인건비 124억원, 기타 경비 354억원 등 1,000억원을 신속 집행에 나선다.

도급 지급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하여 원도급사의 임금체불 및 임금 유용, 대금 지급 지연을 방지한다.

특히 계약업체들이 명절 전에 자금 수요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기성금 청구에 대하여는 즉시 준공 검사를 실시하여 각종 대금 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원활한 설 명절 자금 집행을 위해 정기예금 만기도래 예정액을 포함하여 1,100여억원을 대기 자금으로 관리하고 지방채 등 자체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자금 확보 방안도 모색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참여기업·청년 모집

군산시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관내 청년들의 실업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은 만 18~39세 청년에게 중소기업 등의 수습기회를 제공하고 직장경력을 쌓게 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용촉진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총 27개 기업, 청년 38명을 선발해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30명을 선발 및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군산시 소재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 중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며 숙박업(호텔·휴양업은 가능)·학원·음식업종 사업체 등은 제외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한 청년들의 수습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포함해 최대 1년간 매월 70만원을 지원하며, 참여 청년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군산=김판근기자

#### 군산시,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모든 주민센터 가능

군산시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지난 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신규 발급 대상자는 17세(2006년생)자로, 이전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주민센터에서 신규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12일부터는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다.

또, 오는 2월 1일부터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군산=김판근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